

2011년을 보내며: 성찰의 시간

“역사적 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궤적을 볼 때에도 새로운 환경과 문제에 직면하고 도전하는 시점이 바로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역설이며,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성찰의 시간이 된 것이다. 긴 호흡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만만치 않았던 2011년을 시작하며 다짐했던 우리의 각오와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뤄낸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잠시 그 안에서 벗어나 전체를 하나로 응시하며 지그시 바라보는 시간이 된 것이다.

2012년을 예측하는 견해는 분분하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고통의 터널’을 감내할 각오를 선진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하버드대 래리 서머스 교수는 향후 5년이 지난 5년보다는 분명히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스 국가 위기로 시작된 유럽 발 경제위기가 글로벌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해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제구조와 시장질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직면한 현실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회피하려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역사적 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궤적을 볼 때에도 새로운 환경과 문제에 직면하고 도전하는 시점이 바로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역설이며,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매슬로(A.Maslow)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추구가 개인의 보다 높은 의식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반대 개념으로 ‘요나신드롬(Jonah Syndrom)’을 들었다. 요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불신과 불평으로 모든 현상을 비판하는 자이다.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마저 불평의 대상이 되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부정이며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만다. 일과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적 모순에 쉽게 빠져들 때가 많다. 한걸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지혜가 일상에서 필요한 이유다.

지난 1년간 함께 고민하고 힘 없이 달려온 Carrotian들과 강사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각 기업의 역량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HRD 파트너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2012년은 분명 우리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가슴 설레는 일이다.



James Roh

We Serve the Global Success!!

C.E.O James Roh(노상충)